

유아 · 성인 관계방식이 유아의 도덕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Adult-child Relationships on the Moral Concepts of Preschoolers

최 보 가**

Choi, Bo Ga

송 미 화***

Song, Mi Hwa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of the moral concepts of 3-, 4-, and 5- year old Korean children. Instruments were the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by Schaefer for mother and teacher nurturing attitudes, and the Domain Distinctiveness Model for children's moral judgments.

Maternal and teacher attitudes were categorized by the affection-rejection factor consisting of affection-affection, affection-rejection, rejection-affection, and rejection-rejection dimensions, and by the permissive, -control factor consisting of permissive-permissive, permissive-control, control-permissive, and control-control dimension. Children's data were collected with an individualized interview in which children were asked to judge moral and social conventional transgression events. 30 children were assigned to each of the maternal/teacher attitude dimensions; thus, there were 120 children for each factor.

Results showed that (1) the affection-affection cohort was most strongly related to moral rules using both the seriousness criterion and deserved punishment criterion, and (2) the permissive-permissive cohort was most strongly related to reasoning and action. However, this cohort did not break out of children's structural limitation (limited responses to the intangible)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서 '발달'이라

고 평가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 논리에 합당한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밝혀낸 실증적 증거로써 유아의 발달을 체계적으

* 본 논문은 1997년 경북대학교 공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체계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전의 발달상태보다 지금의 발달상태가, 그리고 다시 나중의 발달상태가 보다 더 '좋은 것' 혹은 '바랄만한 것' 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중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의 발달보다 '더 좋은 것' 임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발달을 도덕성 혹은 지성의 발달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도덕성 혹은 지성이란 엄밀한 기준과 준거에 의해서 성립하는 이상(理想)이므로 무엇을 도덕성 혹은 지성이라고 규정하며 왜 그렇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심리학적 탐구인 동시에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Piaget와 Kohlberg에 의하면 아동은 '자연적 철학자' 이므로, 아동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그가 구성하는 현실(reality), 즉 세계에 대한 그의 조망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조망능력은 세계에 대한 그의 경험과 함께 발달한다. 사회적 세계에 대한 아동의 조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의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아동의 방식은 사람들 사이의 참으로 옳은 관계를 구상하는 관념, 즉 정의의 원리의 실질적 구성과 적용이다. 아동의 도덕성이란 바로 옳은 관계를 맺는 그의 방식을 일컫는다. 유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개념(conception)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즉 '머리 속에서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유아 자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제 조건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 내부의 '이론화' (이동화, 1995)는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유아는 보다 심각한 '문화적 압력' 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Chilamkurti와 Milner(1993)는 단정적인 성인일수록 유아에

게 그 사태가 왜 그러한지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며, 그것은 유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Piaget, Kohlberg, 그리고 사회인지론자들에 의하면, 유아의 자기주도적(self initiating) 추리가 그의 도덕개념을 매개한다. 자기주도적 추리와 상응하는 문화적 압력의 요소를 '유아의 도덕개념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성인의 가치부과' 라고 가정한다면 성인의 가치부과는 자기의 논리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유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아가 직면하는 문화적 압력의 문제는 그 압력이 유아의 자기주도적 추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유아의 이론화 과정에서 문화적 압력이 작용한다면 우리나라 유아의 사회적 행동이 행태상 다른 나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유아의 이론화 과정 내의 인지적 갈등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것이다. 유아는 분명 다르게 이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행태상으로는 유사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론화와, 밖으로 드러내는 행태 간의 불일치를 자주 경험하는 유아는 도덕 발달상의 지체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가정의 부모의 양육방식 혹은 교사의 양육방식을 성인중심이 아닌, 유아권리 중심에서 재규정하는 일은 행동주의 경향의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Turiel(1983)이 말하듯 유아들은 자신들의 도덕개념에 맞지 않는 성인의 규칙부과, 그리고 유아들로 하여금 도덕개념을 명료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하라, 하지마라' 식의 지시·명령에 갈등을 겪고 있다. 유아들이 성인의 것과는 다른 개념방식을 사용하여 여러 도덕적 쟁점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부모와 유아원 교사들은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는 상대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요구에 인지적으로 더 큰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며, 유아의 도덕개념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성인들에 의해서 보다 더 큰 인지적 갈등을 겪을 것이다. 사회인지 접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Kohlberg의 주장, 즉 “아동의 생동적 사고(active thinking)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기 위해 그 가치는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 것이라고 보는 진보적 관점의 적법성”(Kohlberg, 1975)은 우리나라 유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압력을 발달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아가 직면하는 문화적 압력의 문제는 그 압력이 유아의 자기주도적 추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 압력이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압력의 영향을 ‘생애에 걸친 발달체계’(life-long development)안에서 설명하고 그것의 발달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을 영역구분가설(Domain Distinctiveness Hypothesis)-유아의 도덕개념연구를 가능케 한 사회인지적 접근 모형—에 따라 설계 분석하며, 연구결과와 설명과 해석에서 Kohlberg와 Piaget의 발달관점을 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유아·성인의 관계방식’(혹은 상호작용 유형)으로 변인화하여 성인과 유아의 관계방식을 애정-거부의 차원과 허용-통제의 차원을 중심으로 유형화한다. 애정이 있는 성인과 유아의 관계에서 유아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것이며, 그 안정감은 유아의 자기행위를 조정하도록 작용하고 있다(Baumrind, 1994). 또한 허용적인 성인과

관계에서 유아는 대화의 의욕을 가질 것이며, 그 대화는 유아 스스로의 의미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역구분가설의 준거체제를 도덕판단에 기능하는 차원을 중심으로, 보다 내용적 특성에 치중하는 준거와 보다 형식적 특성을 지닌 준거로 구분해 사용했다. Piaget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전자는 형체가 뚜렷한(tangible) 결과에 민감한 준거, 후자는 형체가 없는 결과(intangible)에 민감한 준거이다. Piaget는 연령이 적을수록 형체가 뚜렷한 결과에 잘 반응한다고 했다.

영역구분가설에 따른 연구는 ‘유아의 정의원리의 재구성 경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 연구들을 방법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첫째, 유아의 존재조건 즉 연령, 지능, 성 등을 쟁점화(연구변인화)한 연구, 둘째, 유아의 사회문화적 조건 즉 지역, 계층, 유아원 경험, 성인과 유아의 관계방식 등을 쟁점화한 연구들이 있다. 유아의 연령, 성, 지능 등을 쟁점화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영역구분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연구결과간의 불일치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Smetana, 1981 ; Krebs, 1983 ; Turiel, Killen & Helwig, 1987, Song, Smetana & Kim, 1987 ; Smetana & Braeges, 1990 ; Smetana, Schlagman & Adams, 1993). 한편 유아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쟁점화하는 연구의 결과들 사이에는 불일치의 정도가 크다. Jagers, Bingham과 Hans(1996)는 빈곤하고 불결한 도심지역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영역과 사회인습영역을 구분하지만, 도심지역의 문화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사태’에서는 구분에 혼선을 일으킨다고 보고한다. 나아가 그들은 영역구분가설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제기하고 있다(Fowler, 1994).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유아의 도덕개념이 지닌 발달적 성질을 영역구분 가설에 따라 밝혀 보고자 한다. 여기서 발달적 성질을 밝힌다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유아의 도덕개념이 문화적 압력 속에서 어떻게 구조적 변이를 일으키는가를 분석하는 것, 둘째 구조적 변이현상을 발달하는 유아의 '발달단계' 로써 해석하는 일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방식에 따라, 유아의 도덕규칙위반 및 사회인습규칙위반을 구분하는 준거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평균 3년 8개월), 4세(평균 4년 7개월), 5세(평균 5년4개월)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연구대상은 대구시내에 위치한 S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140명을, 그리고 본조사에는 대구시내 7개구에서 무선표집한 3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머니 1,865명, 교사 21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에서 어머니와 교사의 질문지를 분석한 다음 어머니와 교사의 양육방식이 애정-거부 차원에서 애정-거부 양육방식의 일치여부에 따른 집단과 허용-통제차원에서 허용-통제 양육방식의 일치여부에 따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이들 집단에 속하는 유아들은 총 240명으로 22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표집되었다.

어머니와 교사의 양육방식 일치여부에 따른 하위집단 유아표집이 동질집단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연령, 성, 어린이집에 다니는 기간에 대해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와 교사의 애정-거부 양육방식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하위집단에 있어서

의 연령($x^2=2.296, p>.05$), 성($x^2=1.357, p>.05$), 어린이집에 다니는 기간($x^2=6.00, p>.05$)에 따른 표집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와 교사의 허용-통제 양육방식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하위집단에 있어서의 연령($x^2=1.357, p>.05$), 성($x^2=5.898, p>.05$), 어린이집에 다니는 기간($x^2=.9786, p>.05$)에 따른 집단간의 동질성 검증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방식 척도

양육방식 검사 질문지는 이원영(1983)의 논문에서 사용된 Schaefer의 MBRI 중에서, 애정적(거부적)방식, 허용적(통제적)방식을 선택, 총 45문항으로 작성하여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후 2개 요인에 대한 36개(애정-거부, 허용-통제)문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사에서 사용한 어머니용, 교사용 양육방

식 척도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설명변량이 낮은 요인을 제외한 26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요인별로 .86, .81이었다

2) 교사의 양육방식 척도

교사의 양육방식 척도는 이 연구를 위한 사전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어린이집의 유아교사들은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므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사의 양육방식 역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어머니용 양육방식척도의 어머니를 교사로, 자녀를 유아로 바꾸어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명변량이 낮은 요인을 제외한 22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요인별로 .84, .79이었다.

3) 아동의 규칙위반 척도

이 연구에서 유아의 규칙위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Nucci와 Turiel (1978), Smetana(1981, 1990), Song 등 (1987), Fowler(199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 사건과 예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사례는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규칙위반 사례 중에서 도덕규칙위반 사례 3가지와 인습규칙위반 사례 3가지를 선정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덕규칙 위반항목 1문항과 인습규칙 위반항목 1문항을 면담 마지막에 반복해서 측정했다.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 .72이었다.

〈도덕규칙 위반 사례〉

- (1)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
- (2)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것

- (3)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인습규칙 위반 사례〉

- (1)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다른 활동 영역에 있는 것
- (2)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돈하지 않는 것
- (3) 웃어른께 인사하지 않는 것

이상 6개의 위반사례를 묘사한 30×23cm 펜화를 위반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제시하였다.

위반에 관한 심각성은 ①지름 7cm 원에 웃는 얼굴(괜찮다), ②지름 10cm 원에 찡그린 얼굴(나쁘다), ③지름 12cm 원에 조금 찡그린 얼굴(매우 나쁘다), ④지름 14cm인 원에 매우 찡그린 큰 얼굴(매우 매우 나쁘다)를 사용하였으며 평정점수는 '괜찮다' 0점, '나쁘다' 1점, '매우 나쁘다' 2점, '매우 매우 나쁘다' 3점을 주었다.

유아의 규칙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규칙이 없다면 위반해도 괜찮다'는 답에 대하여 0점, '규칙이 없더라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답에 대하여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독립성에 관한 질문에서 유아들이 규칙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지켜야 한다고 정한 약속"이라는 말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보편성에 대한 판단은 '어린이집이 아닌 집에서 위반해도 괜찮다' 0점, '어린이집이 아닌 집에서도 위반해서는 안된다' 1점을 주었다.

응분의 별에 대한 판단은 '괜찮다' 0점, '약간' 1점, '많이' 2점을 주었다.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첫 단계는 예비조사로서, 본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를 작성하여 1996년 6월 1~7일까지 4, 5세 유

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의 두번째 단계는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으로서, 1996년 6월 17일~6월 29일까지 34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1,865명과 교사 215명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1,385부, 교사용 질문지는 18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은 어머니용 질문지 74%, 교사용 질문지 87%였다.) 이 중 기재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용 1,223부, 교사용 178부가 분석되었다.

자료수집의 세번째 단계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를 분석하여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유아집단을 분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를 분석하여 두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계산한 후 요인별 점수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각 요인별 상위 25%, 하위 25%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교사를 표집하였다. 이때 어머니와 교사 모두 애정적인 집단, 애정적인 어머니와 거부적인 교사 집단, 거부적인 어머니와 애정적인 교사 집단, 어머니와 교사 모두 거부적인 집단으로 분류했다. 허용요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의 네 번째 단계는 애정, 허용으로 분류한 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면담하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유아는 22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3, 4, 5세 유아 총 240명이다. 면담자들은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대상 유아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자료실이나 개인면담실에서 약 15~20분간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대화를

나눈 뒤 어린이집에서의 위반사례 6가지를 그림과 함께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위반 사례와 그것을 묘사한 그림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질문을 하였다.

(1)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여기 있는 찡그린 얼굴 그림을 보고 가리켜 보렴(괜찮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매우 매우 나쁘다).

(2) 만약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규칙(선생님과 지키기로 한 약속)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해도 괜찮니?(예, 아니오)

(3) 만약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행동은 괜찮니?(예, 아니오)

(4)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한 친구에게 벌을 준다면 얼마나 주어야 할까?(주지 않아도 된다, 약간, 많이)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영역, 준거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다변인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 test와 t-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양육방식의 애정-거부차원과 허용-통제 차원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사의 양육방식의 일치 여부와 유아의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 판단

어머니와 교사의 애정-거부 양육방식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들의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대해 각 준거별로 판단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으며 어머니와 교사의 허용-통제 양

육방식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들의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대해 각 준거별로 판단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1) 심각성 준거

심각성 준거에 대해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1> 어머니와 교사의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각 준거별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 위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준 거	규칙영역	애정-애정	애정-거부	거부-애정	거부-거부	전체	
		(30)	(30)	(30)	(30)	(120)	
		M(SD)	M(SD)	M(SD)	M(SD)	M(SD)	
심각성	도덕규칙	.89(.15)	.76(.20)	.80(.15)	.77(.18)	.80(.18)	
	사회인습규칙	.72(.22)	.76(.21)	.79(.17)	.79(.19)	.76(.20)	
	전체	.81(.19)	.76(.21)	.80(.16)	.78(.19)	.78(.19)	
규칙	도덕규칙	.98(.09)	.99(.06)	.96(.12)	.96(.19)	.97(.12)	
	독립성	사회인습규칙	.98(.09)	.99(.06)	.97(.10)	.96(.19)	.97(.12)
	전체	.98(.09)	.99(.06)	.97(.11)	.96(.19)	.97(.12)	
보편성	도덕규칙	.99(.06)	1.00(.00)	.98(.09)	.97(.18)	.98(.11)	
	사회인습규칙	.98(.09)	.99(.06)	.99(.06)	.99(.06)	.99(.07)	
	전체	.99(.08)	1.00(.03)	.99(.08)	.98(.12)	.99(.09)	
응분의 벌	도덕규칙	.72(.10)	.75(.28)	.74(.27)	.80(.13)	.75(.21)	
	사회인습규칙	.61(.10)	.74(.31)	.73(.25)	.83(.12)	.73(.23)	
	전체	.67(.10)	.75(.30)	.74(.26)	.82(.13)	.74(.22)	

애정-애정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애정, 교사의 양육방식이 애정에 속한 집단

애정-거부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애정, 교사의 양육방식이 거부에 속한 집단

거부-애정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거부, 교사의 양육방식이 애정에 속한 집단

거부-거부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거부, 교사의 양육방식이 거부에 속한 집단

〈표 2〉 어머니와 교사의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각 준거별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 위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준 거	규칙영역	허용-허용	허용-통제	통제-허용	통제-통제	전체
		(30)	(30)	(30)	(30)	(120)
		M(SD)	M(SD)	M(SD)	M(SD)	M(SD)
심각성	도덕규칙	.86(.13)	.76(.20)	.77(.20)	.76(.16)	.78(.18)
	사회인습규칙	.72(.22)	.79(.16)	.80(.21)	.77(.15)	.77(.19)
	전체	.79(.18)	.78(.18)	.79(.21)	.77(.16)	.78(.19)
규칙 독립성	도덕규칙	1.00(.09)	.96(.06)	.99(.19)	.99(.06)	.99(.17)
	사회인습규칙	.94(.22)	.94(.06)	.99(.22)	.99(.06)	.97(.16)
	전체	.97(.11)	.95(.06)	.99(.21)	.99(.06)	.98(.17)
보편성	도덕규칙	.99(.06)	.93(.00)	1.00(.00)	.99(.06)	.98(.11)
	사회인습규칙	.96(.15)	.94(.00)	1.00(.00)	1.00(.00)	.98(.12)
	전체	.98(.10)	.94(.00)	1.00(.00)	1.00(.00)	.98(.12)
응분의 별	도덕규칙	.72(.33)	.74(.31)	.76(.31)	.72(.21)	.73(.29)
	사회인습규칙	.58(.34)	.71(.30)	.75(.28)	.74(.23)	.70(.29)
	전체	.65(.34)	.73(.31)	.76(.30)	.73(.22)	.72(.29)

허용-허용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허용, 교사의 양육방식이 허용에 속한 집단
 허용-통제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허용, 교사의 양육방식이 통제에 속한 집단
 통제-허용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통제, 교사의 양육방식이 허용에 속한 집단
 통제-통제 :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통제, 교사의 양육방식이 통제에 속한 집단

〈표 3〉 심각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방식유형	.06	3	.02	.37
오차변량	6.10	116	.05	
피험자내 변량영역	.10	1	.10	6.30*
영역×양육방식유형	.35	3	.12	7.65**
오차 변량	1.75	116	.02	
전체 변량	8.36	239		

*P < .05 **P < .01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심각성 준거에 대하여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및 영역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65, P<.01 ; F=6.30, P<.05). 그러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아들은 사회인습규칙위반(M=.76)보다 도덕규칙위반(M=.80)을 더 나쁜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심각성 준거에 대해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별로 규칙영역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

해 각 양육방식 유형별 t-검증을 한 결과, 애정-애정 집단은 심각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t=5.28, P<.01$), 애정-거부집단, 거부-애정집단, 거부-거부집단은 영역간 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교사가 애정적인 집단의 유아들은 다른 집

단의 유아들에 비해 도덕규칙위반($M=.89$)을 사회인습규칙위반($M=.72$)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심각성 준거에 대해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각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방식유형	.02	3	.01	.12
오차변량	5.94	116	.05	
피험자내 변량영역	.01	1	.01	.59
영역×양육방식유형	.32	3	.11	7.14*
오차 변량	1.71	116	.01	
전체 변량	8.0	239		

* $p < .05$

<표 4>에 의하면 심각성 준거에 대하여 규칙 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F=7.14, P<.05$),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 및 영역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각성 준거에 대해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별로 규칙영역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양육방식 유형별로 t-검증을 한 결과, 허용-허용집단은 영역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t=4.03, p<.01$), 허용-통제, 통제-허용, 통제-통제 집단은 영역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교사가 허용적인 집단의 유아들은 다른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도덕규칙위반($M=.86$)을 사회인습규칙위반($M=.72$)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Siegal 등, 1985 ; Smetana, 1981, 1985 ; Smetana 등, 1990)에서, 4, 5세 유아들이 사회인습규칙위반보다 도덕규칙위반을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며 자신들이 직접 주인공이 된 위반사태에서는 사회인습규칙위반보다 도덕규칙위반을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연구결과(Smetana 등, 1993)와 일치하며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장금순(1988)의 연구에서 5세, 홍순정(1985)의 연구에서 4세 유아들은 심각성 준거를 사용하여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위반을 구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 변인 중, 유치원 아동의 경우 자율적 요인과 애정적 요인 순으로 예언해 준다는 오금희(1985)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맺는 애정적 관계가 아동의 도덕판단 수준을 높여 준다는 연구결과(오금희, 1985)와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도덕판단의 수준 뿐만 아니라 덕목의 내면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Holstein, 1968)는 연구결과는 애정적 관계가 유아들로 하여금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했고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의 모방기제를 발달특성이라고 한다면, 교사도 부모와 함께 가장 가까운 모방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수행에 만족을 나타낼 줄 아는 모델이 제시될 때 유아가 잘 동기화되므로, 유아의 동일시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박찬옥, 1994).

허용-허용집단의 유아들이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비해 도덕규칙위반을 더 나쁘다고 판단한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에 의한 자녀학대와 아동의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Chilamkurti 등, 1996)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은 어머니와 관계맺는 자녀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이 낮은 어머니들과 관계맺는 자녀들에 비해 도덕위반에 대한 판단은 비슷하지만 사회인습위반을 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학대를 덜 하는 어머니들은 자녀학대를 심하게 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들의

도덕규칙위반과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대해 더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도덕규칙에 대해 더 순종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성인·유아의 통제적인 관계는, 허용적인 관계에서보다 성인의 물리적인 제재가 더 많이 가해진다고 본다면 부모·교사의 통제-통제집단, 통제-허용집단, 허용-통제집단의 유아들이 허용-허용집단의 유아에 비해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위반을 비슷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날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2) 규칙독립성 준거

규칙독립성 준거에 대한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른 차이검증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 규칙영역에 따른 주효과 및 규칙영역과 양육방식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표 5),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른 차이검증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규칙 영역에 따른 주효과 및 규칙영역과 양육방식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이와 같은 결과는 3년 6개월된 유아들이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위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Fowler(1994), 홍순정(1985), 최보가와 송미

〈표 5〉 규칙 독립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04	3	.01	.56
오차변량	2.92	116	.03	
피험자내 변량 영역	.00	1	.00	.11
영역×양육방식유형	.00	3	.00	.11
오차 변량	.50	116	.00	
전체 변량	3.46	239		

〈표 6〉 규칙 독립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06	3	.02	.52
오차변량	4.71	116	.04	
피험자내 변량 영역	.03	1	.03	2.35
영역×양육방식유형	.06	3	.02	1.66
오차 변량	1.46	116	.01	
전체 변량	1.32	239		

화(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유아들이 규칙독립성 준거에 의해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위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규칙독립성의 준거를 개념적으로 분화시키지 못한다는 점(홍순정, 1985)과 보육교사는 사회인습규칙위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황보영란, 1988)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Smetana(1989)에 의하면,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사회인습규칙을 더 자주 위반했으며 어머니는 그 위반에 대해 사회질서와 사회규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을 더 자주 사용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어머니가 부과하는 규칙은 유아들의 개념적 사고를 자극하기보다 규칙 그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사는 담당하는 유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유아들 사이의 사소한 도덕적 문제는 교사에 의해 미처 발견되지 못하거나 또는 교사가 다른 일 때문에 사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는 주로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자신이 주도한 규칙에 대해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황보영란, 1988)는 유아들이 규칙과는 독립적으로 도덕규칙위반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3) 보편성 준거

보편성 준거에 대한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른 차이검증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규칙영역에 따른 주효과 그리고 규칙영역과 양육방식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표 7), 허용-통제요인의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대한 차이검증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 규칙영역에 따른 주효과 및 규칙영역과 양육방식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이 결과는 우리나라 5세 유아들이 도덕규칙의 보편성을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장금순, 1988)와 4세 유아들이 사회인습규칙위반보다 도덕규칙위반을 그 위반이 일어나는 맥락과 상관없이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Smetana 등, 1990, 1993)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4세 유아들이 보편성 준거에 의해 도덕영역과 사회인습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fowler, 1994 ; 홍순정, 1985 ; 최보가와 송미화, 1996)와는 일치한다.

Smetana 등(1990)은 보편성 준거는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준

〈표 7〉 보편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01	3	.00	.26
오차변량	1.32	116	.01	
피험자내 변량 영역	.00	1		.11
영역×양육방식유형	.01	3	.00	.99
오차 변량	.49	116	.00	
전체 변량	1.83	239		

〈표 8〉 보편성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14	3	.05	2.09
오차변량	2.56	116	.02	
피험자내 변량 영역	.00	1	.00	0.09
영역×양육방식유형	.02	3	.01	1.30
오차 변량	.59	116	.01	
전체 변량	3.31	239		

거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을 하였고, 실제로 유아들이 보편성 준거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Jagers 등(1996)은 유아들의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부모와 대화관계에 있는 유아들은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을 구분하는 데 보편성 준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보편성 준거사용에 어려움을 겪을까?

가정 내에서 규칙을 주제로 한 실랑이가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며, 유아들은 규칙을 둘러싼 갈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이은표, 1994)는 결과는 보편성 준거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유아에 대한 부분적 설명일 수 있다. Dunn과 Munn(198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유아는 어머니와 규칙을 둘러싼 실랑이에서 자신의 이유를 자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신은주(1993)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유아와 함께 노래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행동과 유아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규칙을 알려주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 그들은 유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어머니와 유아교사는 유아의 도덕개념과 사회인습개념에 혼란을 일으키는 반응을 자주 하며, 그것이 유아의 규칙에 대한 개념적 사고를 방해하고 있다.

4) 응분의 별 준거

응분의 별 준거에 대한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응분의 벌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간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70	3	.23	3.19*
오차변량	8.53	116	.07	
피험자내 변량 영역	.04	1	.04	2.41
영역×양육방식유형	.19	3	.06	3.98*
오차 변량	1.80	116	.02	
전체 변량	11.26	239		

* P < .05

〈표 9〉에 의하면 규칙영역과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 및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98 P<.05 ; F=3.19 , P<.05).

응분의 벌 준거에 대해 양육방식 유형별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Scheff의 사후검증 (= .05수준)을 한 결과, 애정-애정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교사가 모두 애정적인 집단의 유아들은 다른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정-거부 양육방식 유형별로 응분의 벌 준거

에 대해 규칙영역에 대한 t-검증의 결과 애정-애정집단은 도덕규칙 (M=.72)과 사회인습규칙 (M=.61)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t=5.11, p<.01) 애정-거부, 거부-애정, 거부-거부집단은 영역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가 애정적인 집단의 유아는 다른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사회인습규칙위반보다는 도덕규칙위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응분의 벌 준거에 대한 허용-통제요인의 양육방식 유형과 규칙영역에 따른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응분의 벌 준거에 대한 규칙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간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피험자간 변량				
양육유형	.37	3	.12	.82*
오차변량	17.43	116	.15	
피험자내 변량 영역	.02	1	.08	3.62*
영역×양육방식유형	.08	3	.07	4.51*
오차 변량	2.17	116	.02	
전체 변량	20.07	239		

* P < .05

〈표 10〉에 의하면 응분의 벌 준거에 대하여 영역과 허용-통제 양육방식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 및 영역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51$ $P<.05$; $F=3.62$; $P<.05$). 그러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아들은 사회인습규칙을 위반했을 때 ($M=.70$)보다 도덕규칙을 위반했을 때 ($M=.73$) 벌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육방식 유형별로 규칙영역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 허용-허용집단은 규칙영역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77$, $p<.01$) 허용-통제, 통제-허용, 통제-통제집단은 규칙영역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가 허용적인 집단의 유아는 다른 집단의 유아에 비해 사회인습규칙을 위반했을 때 ($M=.58$)보다 도덕규칙을 위반했을 때 ($M=.72$)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는 응분의 벌 준거를 사용하는 유아의 도덕개념에 대해 보고한 Smetana (1981), 장금순(1988), Fowler(1994), 최보가·송미화(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Fowler(1994)의 연구에서 유아들이 응분의 벌 준거만 사용하여 도덕규칙을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Jagers 등(1993)의 연구, 즉 미국 저소득층 유치원 아동들이 응분의 벌 준거에서 도덕영역과 사회인습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대조된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서 복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Kelly, Power & Wimbush, 1992), 대화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는다(Kelly, Sapehez-Hucles & Walker, 1993)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아들은 성인의 규칙부과가 자주 일

어나는 환경조건에서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며, 두 규칙의 위반에 대해 똑같이 응분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Fowler(1994)의 연구에 의하면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계층의 아동들이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대해 더 엄한 벌을 부과했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교사의 관계방식이 애정-애정, 허용-허용 집단의 유아들이 다른 집단의 유아에 비해 규칙을 위반했을 때 받아야 할 벌의 양은 적었지만 도덕규칙과 인습규칙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은 어머니들은 위험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사회인습적 위반에 대해서도 물리적 힘을 사용했으며, 도덕위반을 징계한 후 보다 오히려 사회인습위반을 징계한 후 더 많은 순종을 기대한다는 보고(Chilamkurti 등, 1996)에서, 규칙부과를 더 강하게 더 자주 하는 성인들은 아동들의 도덕영역과 사회인습영역의 사고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처벌보다는 대화방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높은 도덕성 발달을 나타냈다고 밝혔으나 Jagers 등의 연구(1996)에 의하면 어머니의 체벌이 유아들의 도덕 및 사회인습규칙위반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룰 때는 아동이 위반한 특정한 사회적 규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혼육한다(Tricket & Kuczynski, 1986)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유아원 교사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유아들을 실제로 통제하며(Smetan, 1984), 위반자에 대해서는 희생자에게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

어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ucci 등, 1978).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신념과 교수행위에 대한 선행연구(김수영, 1992 ; 최윤정, 1990)에 의하면, 교사의 별 중심의 교수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사는 어머니보다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여기에 어머니의 거부와 통제가 부가되면, 유아들은 도덕개념의 형성에 더욱 큰 혼란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유아는 어머니, 유아원 교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의 자기주도적 도덕추리를 행하는 데 개념적으로 곤란을 겪을 것이며, 곤란을 겪는 것만큼 자신들의 도덕개념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연구는 어머니·교사와 유아의 관계방식에 따라 유아의 도덕규칙 및 사회인습규칙 구분에 차이가 나타나지를 조사했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유아들은 영역구분가설의 네 준거 가운데 주로 심각성 준거와 응분의 별 준거를 사용하여 도덕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한편 규칙독립성 준거와 보편성 준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교사의 관계방식이 애정-애정 유형인 집단에 속한 유아들이 다른 유형의 집단에 속한 유아들에 비해, 도덕규칙위반을 사회인습규칙위반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응분의 별을 더 많이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교사와 유아가 맺은 심리적 관계는 형체가 뚜렷한 두 준거에 한하여 유아의 도덕개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형체가 없는 두 준거의 사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교사의 관계방식이 허용-허용 유형인 집단에 속한 유아들이 다른 유형의 집단에 속한 유아들에 비해 심각성 준거와 응분의 별

준거에 의거하여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을 더 잘 구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교사와 유아가 맺는 대화적 관계는 형체가 있는 두 준거에 한하여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을 자극하고 있지만, 형체가 없는 두 준거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

어머니·교사의 허용-허용에 따른 유아의 대화적 관계도 그리고 어머니·교사의 애정-애정에 따른 유아의 심리적 안정감도 유아로 하여금 규칙독립성 준거와 보편성 준거를 사용하도록 자극하지 못한 셈이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나라의 선행연구 결과와 불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인이 행동차원에서 유아에게 '애정' 그리고 '허용'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심층적으로는 아동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유아의 사회적 발달 연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아는 도덕개념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구조적인 양태는 영역구분가설의 기대에 따르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 유아는 심각성 준거와 응분의 별 준거를 만족시키는 도덕개념을 형성하지만, 형체가 없는 준거 즉 규칙독립성 준거와 보편성 준거를 사용하여 도덕판단을 내리는 데는 곤란을 겪고 있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 결과 어머니·교사의 양육행동

이 애정적이거나 허용적인 집단의 유아들만이 심각성, 옹분의 별 준거에 의해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을 구분했고 다른 집단의 유아들은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규칙독립성과 보편성 준거에 의해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점은 규칙과 보편성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규칙독립성 준거와 보편성 준거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이분법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사고영역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 유아의 언어이해 수준을 고려한 질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도덕사태는 Tisak 등(1983)에 의해 구분된 독특한 요소를 지닌 사태들을 포함시켰지만 타인에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규정한 Turiel(1983)과 Smetan(1983, 1985)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동들은 행동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도가 고려된 자극사건을 사용하여 결과와 의도 모두에 대한 유아들의 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규칙 및 사회

인습규칙위반 사건에 대한 자료는 언어적인 그림자료를 사용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주의집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매체들(손인형, 비디오 제작)을 사용하여 면담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유아들이 실생활 사태보다 가설적 사태에서 도덕규칙위반과 사회인습규칙위반을 잘 구분한다는 연구결과(Smetana 등, 1993)로 미루어 실생활 사건에 대한 유아들의 도덕규칙위반과 사회인습규칙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양육유형을 두차원으로 나누었고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을 훈육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양육의 역할로 보고 집단을 분류했다. 앞으로는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어머니와 교사의 훈육방식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또래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사회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수영(1992). 유치원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박찬옥(1994). 도덕성 기초확립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 한국유아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 신은주(1993). 가정과 교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금희(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화(1994). 실재와 다른 신념에 대한 학령전 아동의 이해.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금순(1988). 5세 유아의 위반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송미화(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4), 49-62

- 최윤정(1990). 유아교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보영란(1988). 사회관습적 사건과 도덕적 사건에 대한 유아와 교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정(1985). Preschool Children's Social Judgement : A Study of Domain distinction in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4집, 821-837.
- Baumrind, D.(1994). The Social context of Child Maltreatment. *family Relations*, 43, 360-368.
- Chilamkurti, C., & Milner, J.S.(1993).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hild Transgressions and Disciplinary Techniques in High-and Low-Risk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Development*, 64, 1801-1814.
- Dunn, J., & Munn, P.(1987). Development of Justification in Dispute with Mother and Sib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16), 791-798.
- Fowler, R.C.(1994). Preschooler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ufts University.
- Hoffman, M. L., & Saltzstein, H.(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47.
- Holstein, C. E.(1968). The relations of children's moral judgment level to that of their parent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the family.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NY : Macmillan.
- Jagers, R. J. & Bingham, K., & Hans, S.L.(1996). Socialization and Social Judgments among Inner-city African-American Kindergartners. *Child Development*, 67, 140-150.
- Kelly, M. L., Power, T. G., & Wimbush, D. D.(1992).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practices in low-income black mothers. *Child Development*, 63, 573-582.
- Kelly, M. L., Sapehez-Hucles, J., & Walker, R. R.(1993). Correlators of disciplinary practices in working to middle class African-American m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39, 252-264.
- Kohlberg, L.(1975).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 phi Delta Kappan, June, 670-677.
- Krebs, D.(1983). Commentary and critique :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es to prosocial development. In D. Bridgeman(ed.). *The nature of prosocial development* (pp.205-217). NY : Academic Press.
- Nucci, L. P., & Turiel, E.(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Siegal, M.M. & Storey, R. M.(1985). Day Care an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6, 1001-1008.
- Smetana, J. G.(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4), 1333-1336.
- Smetana, J. G.(1984). Toddler's social interactions regarding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 *Child Development*, 55, 227-287.
- Smetana, J. G.(1985). Preschool Children's

- Conceptions of transgressions ;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attrib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8-29.
- Smetana, J. G.(1989). Toddler' s social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in the hom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99-508.
- Smetana, J. G., & Braeges, J. L.(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 s moral and conventional judg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36(3)*, 329-346.
- Smetana, J. G., Schlagman, N., & Adams, P. W.(1993). Preschool Children' s Judgements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4*, 202-214.
- Song, M., Smetana, J. G., & Kim, S.Y.(1987). Korean Children' 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582.
- Tisak, M. S.(1983). Children' s of Authority within Different Systems of Social Rules, Ph. D.,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Tricket, P.K., & Kuczynski, L.(1986). Children' s misbehaviors and parental discipline strategies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15-123.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Turiel, E., Killen, M., & Helwig, C. C.(1987). Morality ; Its structure, functions and vagaries, In L. Kagan & S. Lamb(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5-264.